

영산강 뱃길 복원 가시화

보성건설 컨소시엄 19개 건설사 적극 참여

우리나라 4대 강 중 최약인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뱃길을 되살려 새로운 경제·관광·생태·문화구심체로 조성하는 복원사업이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시화되고 있다.



■영산강 복원사업 구간
사업구간 (84km) 광주, 목포, 영산강

30일 건설업체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본촌동 광산대교~영산강 하구둑 83.59km 구간에 걸친 영산강 복원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이 보성건설과 금호건설에 의해 각각 추진되고 있으며 보성건설 컨소시엄에는 보성 등 19개사가 참여해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보성건설 관계자는 "컨소시엄에 한양·금광기업·송촌건설·남해종합개발·새천년종합건설·대신종합건설·남양건설·남도건설 등이 이미 공동사업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7일까지 현대건설·고려개발·동양건설산업·쌍용건설·반도건설·우미건설·풍광건설·JA건설·대주건설·해동건설 등도 동참의사를 밝혔으며 국민은행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영산강 복원을 위한 민자사업 계획을 보고한 바 있는 보성건설은 이달 중순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영국 등의 뱃길 복원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왔다. 이어 29일에는 시공사와

하리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복원사업을 통해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대운하 건설 사업 총선 이후 가속도

정부가 대운하 건설을 깊은 수준에서 검토해 온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운하 추진 관련 보고서를 만들었다.

가장 최근에 만든 보고서가 이번 달에 건설수자원정책실에서 만든 것으로 내년 4월경부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번달부터 민간이 사업 제안서 작성에 들어가 4~5월에 정부에 제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보조를 맞추듯 건설회사 상위 1~5위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제안서를 내는 것을 목표로 사업 제안서 작성에 들어갔다.

정부는 제안서가 접수되면 9~10월까지 제3차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11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뒤 내년 1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



목포역 광장에 몰린 표심

총선을 10일 앞둔 30일 오후 2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참석한 목포역 광장 유세에는 무려 5천여명의 목포시민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역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김대중, 이희호, 박지원'을 연호했으며, 이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지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DJ' 찍자니 민주당 울고 민주당 찍자니 DJ 울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자니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울고, 동교동 후보를 선택하자니 민주당이 울고, 내 마음 나도 모르겠소."

지난 주말 각 후보자들의 유세전이 벌어진 무안 장터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확실한 지지 의사보다는 일단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역대 선거에서 사실상 한 몸이었던 DJ와 민주당의 이미지가 충돌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아들인 김홍업 무소속 후보의 지원 유세에 직접 나서면서 무안·신안지역 민심이 더욱 요동치고 있다. 29일 무안 장터 유세전을 지켜보던 이모(59)씨가 "지내온 세월이 열만년 DJ를 내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동행하던 최모

(57)씨가 "나는 인자 마음을 바꿨소"라고 응수했다. 정치권에 대한 거부 반응도 나왔다. 무안에서 자영업업을 하는 김모

택시 기사 박모(40)씨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이번 선거에 답답해 한다"며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것이 무안

확실한 지지의사 결정 못해 갈등 "아직 시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

(47)씨는 "능장 공원을 한 민주당이나 아들을 기어코 출마시킨 DJ나 다 똑같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같은 민심을 반영하듯 무안 출안·신안지역 민심이 더욱 요동치고 있다. 29일 무안 장터 유세전을 지켜보던 이모(59)씨가 "지내온 세월이 열만년 DJ를 내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동행하던 최모

유세 분위기"라고 말했다. DJ의 정치적 고향이자 전남 정치 1번지인 목포에서도 DJ의 복심인 무소속 박지원 후보와 정영식 민주당 후보가 치열한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선거 구도는 복잡한 민심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 30일 오전 목포 유달산 산책로에서 만난 김모(49)씨는 "DJ와 민주당

당이 싸우니까 어찌야 할라 모르겠소"라며 "후보나 유권자 모두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다"고 복잡한 속내를 털어냈다.

이날 목포역에서 열린 박지원 후보의 유세장에 들른 박모(64)씨는 "박지원씨는 끝까지 DJ를 지켜온 사람인데 우리도 의리를 지켜야겠다"고 말했으며 이모(56)씨는 "다른 지역도 아니고 목포에서 DJ를 거부하면 어디서 DJ를 챙겨주겠느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당 신도심에서 만난 노모(40)씨는 "이제 목포도 DJ 이후를 열어 가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고, 송모(38)씨는 "DJ를 떠나 박 후보가 목포를 위해 얼마만큼 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인문론이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北 '선제 타격' 주장 사과 요구

국방부 "2~3일 내 답신 결정"

국방부는 30일 장성급회담 복측 단장(김영철 중장)이 전화통지문을 통해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한 핵공격 대책 발언을 '선제타격'으로 주장하고 사과와 발언 취소를 요구한 데 대해 "2~3일 내에 답신을 보낼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국방부는 이날 '언론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복측 단장인 김영철 중장이 보낸 전화통지문을 29일 오후 9시 수석대표인 권오성 소장이 접수했다"면서 그 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전화통지문이 접수되자 즉각 전제국 정책실장과 권오성 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관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사회 국방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도 국방부 청사로 각각 복귀해 관계관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성급군사회담 복측 단장은 김태영 합참의장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공격 대책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선제타격 폭언'이라고 주장한 뒤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전화통지문)을 남측 수석대표에게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Joitreeble (주) 조이트레블, featuring a list of service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Daehan Finance (대한금융) promoting a travel package to Hwangshan (黄山) in China, including flight and hotel details.